

의왕시, 수원시와 9월 '노동안전의 날' 맞아 합동점검 실시

김명석 기자 | 승인 2026.09.03 13:16

사업주·노동자 안전인식 개선과 중대재해 예방 활동



▲ 의왕시-수원시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 모습.

의왕시는 9월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9월 2일, 수원시와 합동으로 '월암초등학교 신축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민명희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과장을 비롯해 수원시 관계자와 노동안전지킴이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건축자재 정리정돈 여부, 작업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실태 등을 확인했다.

또한, 점검 이후에는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를 표어로 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며, 작은 안전 실천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나아가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명희 과장은 "앞으로도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한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노동안전지킴이'는 관내 제조업이나 건설공사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 방법을 지도하는 인력으로, 3월부터 안전점검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지역 내 사업장 406개소를 대상으로 총 885회의 점검을 추진 했다. 점검 결과, 개선 요청 사항 1181건 중 1017건이 조치 완료돼 86.1%의 시정조치 개선율을 기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명석 기자